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비콜 (정재영, 이기쁨 선교사) 기도 편지

할렐루야!

이곳 필리핀은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거의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신학교 사역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물밀듯이 몰려 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1. BSTGC (BST 은혜대학교) 사역

1) **필리핀 교육부 (CHED) 대학교 최종 인가**

지난 4월 26일 필리핀 교육부로부터 최종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6백만 비콜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열심을 더할 것입니다.

2) **졸업식과 신입생 등록**

7월 12일에는 총 18명의 학생들이 200여명의 가족, 친구, 교직원, 재학생들의 축복 속에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지난 4년동안 정식 대학으로 인가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명의 신입생을 보내주셨습니다. 비콜 지역의 유일한 교육부 인가 신학교로서 신실하며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 **개교 30주년 기념일 행사**

1992년 개교 이래 30주년을 맞아 8월 23~25일 3일동안 선교사님 세 분 (배상호, 이훈찬, 고영신 목사) 을 초청하여 강의와 간증,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신학교를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이 비콜지역, 필리핀 전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및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죽으면 교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다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 빠무깃 장로 교회 사역

신학교 안에 있는 빠무깃 장로 교회를 맡아 사역한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초청된 커비 전도사 부부의 열정적인 사역으로 주일학교 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성경 학교에는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교회와 연결하여 사역들을 배우게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이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여 선교사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처리가 잘 되어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15년 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둘째 윤호 (8학년)가 마닐라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Ahyuwani Akanet
(Teacher: Mike Brick)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세상을
그리스도의
연결하는 교회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www.chicagobridgechurch.org



